

충남리포트 제134호

ChungNam Report

2014. 10. 17.

CONTENTS

〈요약〉

1. 충청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의 교두보, 허베이성
2. 허베이성 기본 현황
3.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의 성과와 아쉬움
4. 양 지역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향 제안
5. 향후 과제

충청남도와 중국 허베이성(河北省)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

박경철

충남발전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책임연구원, kcpark@cdi.re.kr

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와 중국 허베이성이 10월 19일로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여 양 지역이 보다 성숙하고 친밀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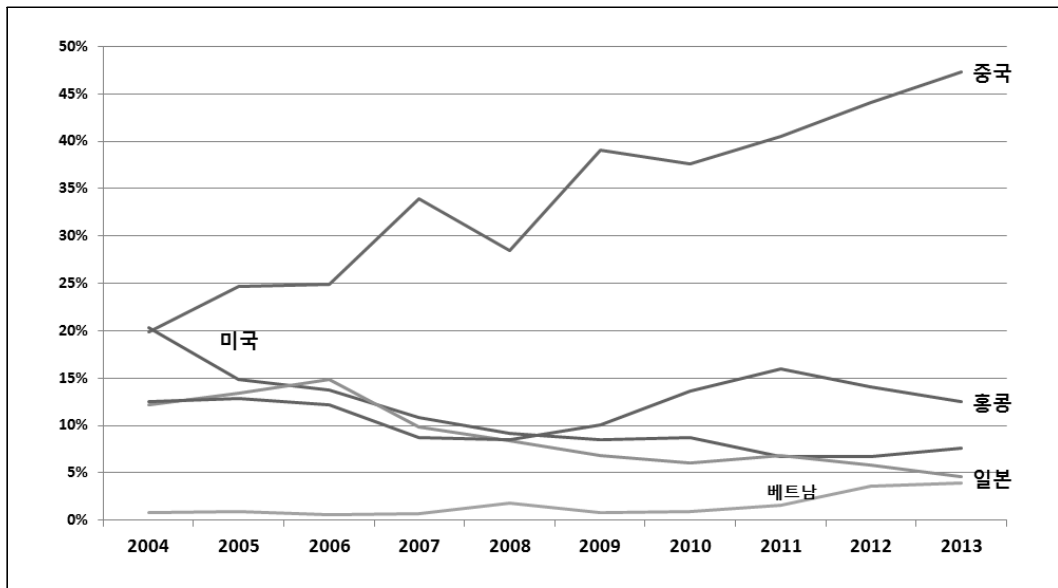
요 약

- 충청남도와 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12월 초 양 지역은 허베이성 성도인 스자좡시(石家庄市)에서 기념행사를 갖기로 합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을 준비하고 있음
- 이번 행사는 그간 20년간의 교류활동을 돌아보고 충청남도와 허베이성이 향후 포괄적 교류협력의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 - 또한 행사 기간에는 양 지역 도·성장 및 대표단의 참석뿐만 아니라 양 지역의 다양한 단체가 MOU를 체결하고 향후 친밀한 교류를 이어 나갈 계획임
- 이 글에서는 충청남도와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그간 양 지역의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충청남도와 허베이성 각 교류협력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
- 여기서 제안하는 주요 교류협력사업의 방향으로는,
 - 충남과 중국(허베이성)의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'3농혁신'을 매개로 한 농업농촌교류협력사업
 - 최근 들어 악화되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생태교류사업
 - 백제문화의 기원을 매개로 한 중국-한국-일본 간 문명과 평화를 잇는 동북아 문명탐원(探源) 교류협력사업
 -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던 두 지역 간 항일독립운동을 매개로 한 역사교류협력사업 등임

충청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의 교두보, 허베이성 ◀

01

- 충청남도는 한중 수교 체결 2년 후인 1994년 10월 19일, 허베이성과 가장 먼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협력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 20주년을 맞이함.
 - 충청남도는 1994년 중국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산둥성(1995), 쓰촨성과 상하이시(1998), 연변조선족자치주(2002), 지린성과 장쑤성(2005), 랴오닝성(2010) 등과 우호협력을 체결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중국 남방의 대표적인 전략지역인 윈난성과 2013년 6월 우호협력을 체결함
 - 또한 충청남도 15개 시·군은 중국의 10개 지역과 자매결연을, 16개 지역과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교류를 진행해옴
- 현재 중국의 경제규모가 G2를 넘어 G1로 향하고 있고,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·관광 분야에서도 그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충청남도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“서해안비전”을 선포하고,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·문화·인적 교류 등 다방면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그 첫 번째 대상이 허베이성이 될 것임
 - 2013년 기준 충청남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47%로 우리나라 평균 26%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며 중화권이라 할 수 있는 타이완과 홍콩까지 합하면 약 65%를 차지함
 - 충청남도는 그동안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성과 못지않게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며 그 시발점은 올 12월 충청남도과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는 허베이성과의 교류협력이 될 것임



〈그림 1〉 충남도의 주요 수출국 변화 동향

허베이성 기본 현황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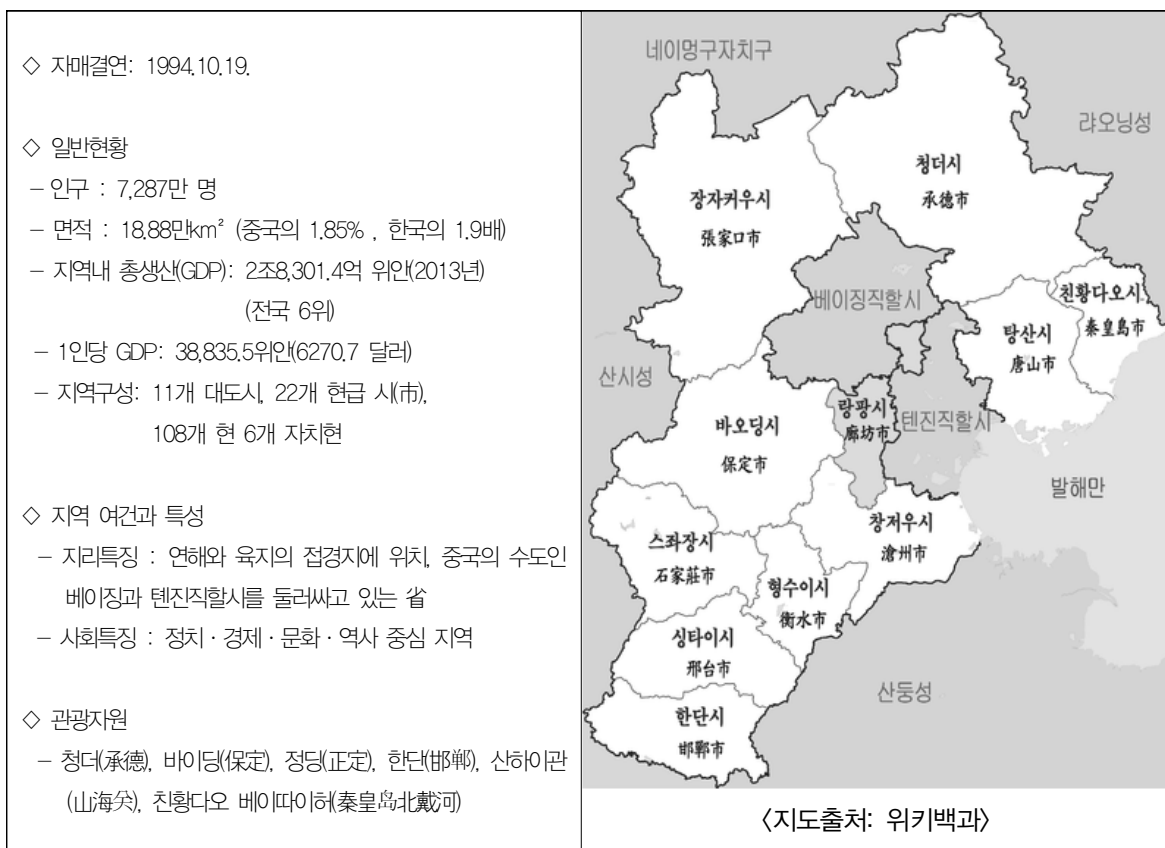
02

-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직할시인 톈진시를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은 중국의 정치, 경제, 문화, 역사의 중심지
 - 2013년 말 기준 허베이성의 인구는 7,287만 명이고 면적은 18.88만km²으로 남한 면적의 1.9배에 해당됨
 - 행정구역을 보면 성 내에 11개 지급(地級) 시(2급 행정단위로 성과 현 사이의 도시)와 22개 현급(縣級) 시, 108개 현과 6개 자치현이 있음. 내륙에서 동북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중화학공업과 석탄, 석유,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임
- 허베이성은 베이징시와 톈진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역사문화 유적이 많으며, 관광과 군사요충지로도 유명
 - 청나라 황제의 피서산장이 있었던 청더(承德), 대원군이 피납됐던 바오딩(保定), 일찍이 조(趙)나라의 수도이자 군사요충지였던 한단지보(邯鄲之步)의 한단(邯鄲), 3황5제의 한 명인 치우(蚩尤)천왕의 전설이 있는 장자커우(張家口), 중국지도자들이 애용하는 피서지로 유명한 친황다오의 베이파이허(北戴河)와 중공 팔로군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조선 의용군의 타이항산(太行山) 항일유적지 등이 있음
- 동부 연해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동부지역에 비해 발전이 뒤처졌으나 최근 들어 연해지역 가속화와 국가급 프로젝트로 추진 중
 - 징진지(京津冀: 베이징시, 톈진시, 허베이성)경제권의 배후기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

- 특히 최근에는 ‘연해강성(沿海强省)’을 목표로 연해경제벨트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연해도 시인 탕산(唐山), 친황다오(秦皇島), 창저우(滄州)의 경제가 활기를 띄고 있음

● 허베이성의 2013년 GDP는 2조 8301.4억 위안(전국 6위)으로 전년대비 6.5% 성장. 1인당 GDP는 6,270달러로 중국 평균 5,414달러 보다 높음

- 성 내 도시 가운데에서는 탕산(唐山)시가 지역 내 GDP와 1인당 GDP에서 각각 6,121.2억 위안, 12,814.9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성도(省都)인 스자좡(石家莊)은 각각 4,863.6억 위안, 7,561.3달러로 2위를 차지. 연해지역인 탕산(唐山)시와 내륙지역인 싱타이(邢台)시의 소득 격차가 약 3배에 이를 정도로 지역 내 소득격차가 심함



〈그림 2〉 허베이성의 개황 및 위치도

〈표 1〉 허베이성 각급 도시 GDP 및 1인당 GDP 현황(2013년)

2013년 GDP순서	주요 도시	2012년GDP (억 위안)	2013년GDP (억 위안)	2012년 인구(만 명)	1인당GDP (위안)	1인당GDP (달러)	1인당GDP 순서
1	탕산(唐山)	5,861.63	6,121.2	771.27	79,365.20	12,814.89	1
2	스좌장(石家庄)	4,500.2	4,863.6	1,038.6	46,828.42	7,561.26	2
3	한단(邯鄲)	3,023.7	3,061.5	993.1	30,827.71	4,977.67	7
4	창저우(滄州)	2,811.89	3,020	744.36	40,571.77	6,551.02	4
5	바오딩(保定)	2,720.9	2,680	1,135.14	23,609.42	3,812.15	10
6	랑팡(廊坊)	1,793.8	1,943.1	433.2	44,854.57	7,242.55	3
7	싱타이(邢台)	1,532.0	1,604.6	718.86	22,321.45	3,604.19	11
8	장자커우(張家口)	1,233.67	1,317	439.38	29,974.05	4,839.83	8
9	청더(承德)	1,180.9	1,272.09	372.96	34,107.95	5,507.32	6
10	친황다오(秦皇島)	1,139.17	1,168.8	302.16	38,681.49	6,245.80	5
11	형수이(衡水)	1,027.47	1,110	442.4	25,090.42	4,051.28	9
	성 전체	26,575.01	28,301.4	7,287.51	38,835.49	6,270.67	—

출처 : 東浩社區(<http://bbs.cnhubei.com/thread-3365334-1-1.html>)

03

▶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의 성과와 아쉬움

- 충남도는 중국의 중북부의 핵심 지역인 허베이성과 1994년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간 행정 교류, 경제 교류, 인적 교류, 문화·관광·체육 교류, 농업과 청소년 교류 등 실시
 - 2013년 말까지 양 지역은 총 112회의 교류 동안 총 997명의 왕래 방문이 있었음. 충남도에서는 49회 454명이 허베이성을 방문했고, 허베이성에서는 63회 543명이 충남도를 방문함
 - 교류 내용을 보면, 행정 교류 차원에서는 양 지역의 교류협력을 위한 방문, 경제 교류는 경제사절단 파견과 투자유치 설명회, 기업체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, 인적 교류로는 행정 연수와 K2H 연수가 있었고, 예술단 방문 공연, 팸투어, 체육팀 전지훈련 등 문화·관광·체육 교류가 있었음. 그 외 농업 및 청소년 교류가 있었음

〈표 2〉 충남도-허베이성 간 교류 현황(2013년 말 기준)

구분	교류 내용
전체	□ 총 112회 997명 교류 - 충남도 → 허베이성 49회 454명 - 허베이성 → 충남도 63회 543명
행정 교류	□ 지휘부 상호방문 및 국제행사 참가 (32회, 332명) - 심대평 전.도지사 허베이성 방문('04. 9) - 바이커밍(白克明) 허베이성 당서기 방문('04. 4) - 이완구 전.도지사 허베이성 방문('07. 4) - 2010 세계대백제전 대표단 참가('10. 9, 5명) - 안희정 도지사 허베이성 방문, 교류협력 강화 협의서 채택('10.11, 9명) - 송석두 행정부지사 '14.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협의 방문('13.11.4, 4명)

구분	교류 내용
경제교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총 18회, 187명 - 경제사절단 파견, 투자설명회·우수상품전 개최 - 허베이성 경제관계자 방문 도내 기업체 벤치마킹(3회)
인적 교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총 13회, 13명 - 행정연수, K2H 공무원 연수
문화, 관광, 체육교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총 19회, 274명 - 충남서예가협회단 허베이성 방문 → '99년 이후 중단 - 백제문화제 허베이성 예술단 공연 → '07년 1회 - 허베이성 대표단 우리 도 팸투어 → '07년 이후 중단 - 체육팀 11종목 229명 상호 경기 및 전지훈련 → '05년 이후 중단 - 충남공예조합 허베이성 방문, 양 지역 공예협회 간 교류('11. 7)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농업수산물환경분야 의견교환회(9회, 37명) □ 행정시책교류회의(13회, 62명) □ 청소년교류 (9회, 92명) → '07년 이후 중단

자료: 충남도청 국제통상과 내부자료

- 이러한 교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참여가 주류를 이루는 문화·관광·체육 교류와 청소년 교류가 대략 2007년부터 중단되어 실질적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

04

▶ 양 지역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향 제안

1) '3농혁신'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사업 추진

- 중국(허베이성 포함)은 '3농 문제', 즉 농민, 농촌, 농업 문제를 당과 국가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 여기고 있고 충남도는 '3농혁신'을 도정의 제1목표로 함
 - 후진타오 주석이 집권한 2004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2014년 현재까지 11년 연속 3농 문제는 <중공중앙1호문건>의 핵심주제였음¹⁾
 - 충남도 안희정 도지사 또한 취임 후 연속 4년 간 '3농혁신'을 도정의 제1목표로 3농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옴.

- 따라서 양 지역이 '3농혁신'을 매개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함
 - 첫째, 기존의 공무원 해외연수와 K2H(해외교류자치단체 공무원 초청사업)사업의 확대를 통해 농업부문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법
 - 둘째, 충남도와 허베이성의 농촌마을 간 교류 실시. 예를 들어, 환경농업에 관심이 있는 마을이라면 홍성의 문당마을과 허베이성의 대상 마을과 연결해 상호 교류함.
 - 셋째, 이러한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서 양 지역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'충남도-허베이성 3농포럼'(가칭) 구성도 고려해볼 수 있음.

1) 시진핑 주석의 2004년 칭화대학 박사논문 제목은 <중국농촌시장화연구>일 정도로 그는 농촌문제에 관심이 많음.

2)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교류협력사업 추진

-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압축성장을 가져왔지만 그 반대급부로 사회 및 환경문제 또한 압축적으로 발생하고 있음
 - 최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베이징의 스모그문제 등은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
- 허베이성 서쪽으로는 산간지역으로 항상 수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성도인 스자좡장시와 남쪽의 한단시에는 철강산업과 석탄산업이 발달해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심각
 - 특히 성도인 스자좡시는 베이징보다도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며 중국에서도 가장 심한 것으로 보도됨
 - 충남도 또한 현재 보령시와 당진시 등 연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화력발전소가 계속 증설되고 있고 당진시에서도 제철공장이 확장되고 있으며, 서산시에서는 화학과 에너지공장과 시설들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수질과 대기 등 환경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
- 따라서 양 지역 간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학술교류와 기술교류는 매우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됨
 - 오는 12월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여 **충남발전연구원**과 **허베이성사회과학원**이 학술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포럼의 주제 가운데 하나를 환경문제로 정한 상태임

3) ‘백제의 뿌리’를 매개로 한 한-중-일 문명탐원(探源) 교류협력사업 추진

- 허베이성이 속해있는 북방의 요하(遼河)지역은 우리의 고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백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대 (북)부여의 근거지이기도 함.

- 중국은 1980년대 들어 중국고고학계에서는 요하문명(遼河文明, 혹은 紅山文化)이 발굴되면서 고대사를 재정립하기 시작함. 왜냐하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중원의 황하문화보다 약 1000여 년 앞선 것으로 규명되고 있기 때문임
- 현재 한강 이남, 특히 충남지역은 백제의 옛 영토로써 그 뿌리는 북방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주와 부여가 북방의 전통을 잇는 상징적인 지역임
- 예를 들어, 공주는 옛 지명이 곰고을, 고마나루(熊津)로 북방의 곰토텐문화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음. 이러한 백제의 문화와 민족이 일본의 많은 지역으로 전파됐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구마모토현(熊本縣)임.
 - 현재 충남도는 구마모토현과 1983년 1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음. 하지만 충남도, 특히 공주시와 부여군은 일본과의 교류활동은 활발하지만 백제의 뿌리와 연관된 중국 북방지역과의 교류활동은 저조한 상태임
- 따라서 현재 비록 한·중·일 중앙정부 간에 역사문제로 관계가 소원할지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과거 문화교류의 역사를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이러한 차원에서 가칭 곰토텐(혹은 Bear Root 또는 Bear Route)을 테마로 한 한(충남도)·중(허베이성)·일(구마모토현) 간 교류활동을 추진하거나 그 산하 지자체인 충남 공주시-구마모토현 나고미정-허베이성 줘루현(涿鹿縣)²⁾ 간 교류활동도 고려해볼 수 있음

4) 항일독립운동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사업

- 충남도와 허베이성은 양국의 대표적인 항일운동의 중심지역임
- 충남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됐고 독립기념관이 소재함.
 - 허베이성 또한 중국에서 항일투쟁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지역으로 중공 팔로군 총사령부

2) 장자커우시(張家口市)에 위치한 줘루현은 현재 중화문명의 뿌리라고 여겨져 대대적인 역사복원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.

의 주무대임. 현재 허베이성의 한단시에는 진지루이(晉冀魯豫) 혁명열사능원이 있음.

● 특히 허베이성 한단시에는 우리나라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에서는 유명한 타이항산(太行山) 항일유적지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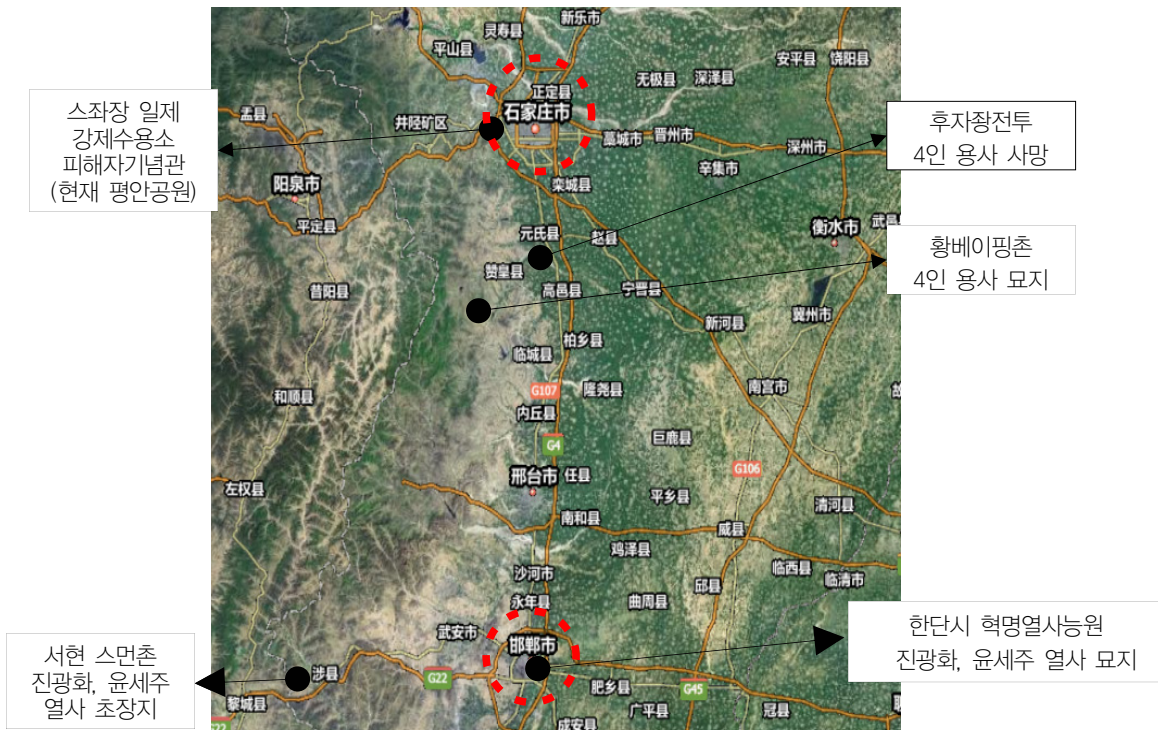
- 이곳은 1942년 5월 일본군의 대대적인 침략 시 중공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이 연합해 격렬하게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덩샤오핑, 평더화이 등 팔로군 지도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 조선의용군 윤세주 열사와 진광화 열사 등이 이들을 구출하고 전사해 매우 역사적 의의를 가진 곳이자 한중 우의의 상징적인 지역임
- 현재 두 열사는 허베이성 한단시의 진지루이(晉冀魯豫) 혁명열사능원에 안장되어 있음

● 허베이성 스자좡시(石家庄市) 잔황현(贊皇縣) 황베이핑촌(黃北坪村)에는 항일무장투쟁을 하다가 전사한 조선의용대 소속 4명의 독립운동가가 안장되어 있음

- 이곳에 안장된 4명(박철동, 손일봉, 최철호, 왕현순)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박철동(朴喆東) 열사와 최철호(崔鐵鎬) 열사는 충청도가 고향임

● 이처럼 항일운동의 메카인 두 지역이 항일투쟁의 역사를 매개해서 교류활동을 추진한다면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

- 이를 위해서 양 지역은 역사적 교류에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되면 도내 관공관련 단체, 역사문화단체, 독립운동연구 및 기념·선양단체, 청소년교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충남도-허베이성 항일독립운동 교류활동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지난 8월 한국에 방문한 시진핑 중국 주석도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국의 공동 기념사업을 제안한 바 있어 이 분야의 교류활동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


〈그림 3〉 허베이성 주요 항일유적지

주: 이 일대를 보통 타이항산(太行山) 항일유적지라고 함.
지도출처: 百度地圖(www.baidu.com)




4인 용사의 묘지



충청도가 고향인 박철동 열사의 묘지

〈그림 4〉 허베이성 한단시 황베이핑촌(黄北坪村)의 4인 열사의 묘지

-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여 향후 양 지역이 보다 성숙하고 친밀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교류협력의 방향으로 크게 3농 정책, 환경문제, 고대역사교류, 항일투쟁기념 등을 테마로 한 4가지 사업을 제시함. 이를 잘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함
 - 첫째,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의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교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11월, 한중 양국 지방정부도 참여하는 “한중인문공동교류위원회”를 조직하고 지방정부 간 인문·역사교류를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
 - 둘째,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에는 지난 20년 동안 교류를 해왔지만 충남도 15개 시·군 가운데 논산시만 허베이성 랑팡시(廊坊市)와 약간의 교류가 있었을 뿐 다른 시·군은 거의 없는 상태임. 따라서 충남도와 각 시·군이 공동으로 연계한 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함
 - 셋째, 그동안의 교류사업들이 경제통상부문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교류에서는 지방정부가 먼저 관계를 구축하고 이어 민간(단체)이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중국 교류의 혜택이 도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
 - 마지막으로, 허베이성은 중국의 두 직할시(베이징시와 톈진시)를 둘러싸고 있고, 충남도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를 둘러싸고 있어 두 지역이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을 잘 활용해 양 지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교류협력전략 수립이 필요함 

박 경 철 책임연구원

충남발전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

041-840-1206, kcpark@cdi.re.kr

※ 본 연구는 ‘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’(2014)의 일부를 수정·보완한 내용임.

◆ 참 고 자 료 ◆

- 성균중국연구소 엮음, 2014, 차이나핸드북, 파주: 김영사.
- 성태규, 2008, 충청남도 대중국 교류 기본계획, 충남발전연구원.
- 성태규 외, 2006,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방안 연구, 충남발전연구원.
- 신종호 외, 2012,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강화방안, 경기개발연구원.
- 외교통상부, 2012, 중국개황,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동북아2과.
- 심지연 외, 2004, 한중 지방정부의 교류와 발전전략 비교, 경기개발연구원.
- 정종관 외, 2013,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서해안 비전 구상, 충남발전연구원.
- 주유홍, 2007, 해상 교류로 본 중국과 백제의 관계, 백제문화 제38호, pp. 47-75.
- 조창완, 2007, 중국관광객 유치전략 방안, 광주발전연구원.
- 한상욱, 2014, 「서해안 비전」 구상(안). 충남발전연구원.
- 한중항일역사탐방단, 2014, 타이항산 아리랑, 서울: 차이나하우스.
- 중국 허베이성정부: <http://www.hebei.gov.cn/>
-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: <http://stat.kita.net/>

2014년도 충남리포트

구분	제 목	집필자	발행일
2014-01	동아시아 철새 보전, 서천갯벌에 달렸다	정옥식	2014.01.01
2014-02	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	이충훈	2014.01.09
2014-03	충남의 협동조합,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	송두범	2014.01.21
2014-04	이제! 유역주인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	이상진	2014.01.27
2014-05	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,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	이민정	2014.01.28
2014-06	조류인플루엔자(AI) 관리 대책, 예방이 최우선이다!	정옥식	2014.02.11
2014-07	지원·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	이인배	2014.02.13
2014-08	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	김양중	2014.02.20
2014-09	사라지는 농촌마을! 한계(限界)마을정책 도입해야	조영재	2014.02.25
2014-10	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	김양중	2014.02.28
2014-11	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	이관률·정현희	2014.03.06
2014-12	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	임형빈	2014.03.13
2014-13	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	김원철	2014.03.27
2014-14	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	최병학	2014.04.03
2014-15	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	고승희	2014.04.16
2014-16	충남 논·밭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	정옥식	2014.05.08
2014-17	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	임준홍·홍성호	2014.05.15
2014-18	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·협력 추진 방안	오명택·김정연	2014.06.12
2014-19	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	김양중	2014.06.19
2014-20	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	송두범	2014.06.24
2014-21	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	이수철	2014.07.14
2014-22	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	이호중	2014.07.16
2014-23	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·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	이정만·고승희	2014.07.17
2014-24	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	최은희	2014.07.21
2014-25	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	김양중	2014.07.23
2014-26	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	장종익	2014.07.28
2014-27	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	주운현	2014.07.30
2014-28	충남 정책 키워드(3농혁신, 사회적경제)의 SNS 데이터 분석	임화진	2014.07.31
2014-29	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	유병덕·최영화	2014.08.05
2014-30	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	김양중	2014.08.07
2014-31	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	박철희	2014.08.11
2014-32	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	김찬규 외	2014.08.21
2014-33	지방 3.0 시대,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	정창수	2014.09.11
2014-34	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	김순은	2014.09.16
2014-35	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	박 경	2014.09.18
2014-36	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	김홍기	2014.09.23
2014-37	충청남도 행복기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	김용현	2014.09.25
2014-38	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안	변창흠	2014.09.30
2014-39	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	안성호·곽현근	2014.10.02
2014-40	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	이상현 외	2014.10.08
2014-41	충남의 산업단지,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	이충훈	2014.10.16

■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(www.cdi.re.kr)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,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!

■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,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.